

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은혜

〈 창세기 41:51-52 〉

1.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?(51-52절)
2.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?(51절a)
3. 요셉은 하나님께서 “내 모든 고난”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“내 모든 고난”은 무엇을 말합니까?(51절b)
4. 요셉이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“내 아버지의 온 집 일”은 무엇을 말합니까? (51절b, 창42:21)
5. 요셉은 어떻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까?(51절b)
6. 둘째 아들의 이름 ‘에브라임’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?(52절)
7. 요셉은 “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”고 하였습니다. (52절b)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입니까? (46절)

■ 함께 기도합니다.

- ① 모든 성도들에게 잊어버림의 은혜와 잊지 않음의 은혜를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
- ② 추위와 굶주림과 폭정에 시달리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복음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
- ③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심장으로 맡겨준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소서